

# 교육평가 방법은 '혁신중'... 역량 기반한 이해·숙련도 주목

## 미래교양리포트④: 평가는 교육의 시작

류태호 (버지니아대학교 교수)

#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버지니아대학 교육 전문가 류태호 교수는 대학 교육의 근원이 이곳에 있다고 설명한다. 시험이 교육의 끝으로 여겨지는 오늘날, 그는 평가는 교육의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한다고 역설한다. 점수라는 숫자에 대응되는 학생들, ABCDF라는 낙인과 함께 모든 교육이 그 끝을 맺는 오늘날. 미래 대학의 길을 묻는 우리들에게 나침반은 평가가 교육의 끝이 아닌 시작이던 대학의 태동기를 다시 가리키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 교육이 도입되기 이전, 대학에서의 수업은 주로 멘토십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오늘날처럼 한 교실에 앉아 있는 수십여 명의 학생들에게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개별 학생들의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파악하고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체크하며 멘토로서 학생들의 학습을 코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에 있어서도 지금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이나 선택형(객관식) 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A,B,C,D,F 중 학점을 부여하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었다. 3~5인의 교수로 구성된 평가단이 학생 개인별로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점은 당시의 평가는 교육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각 학생마다 잘못 이해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찾아내고 그에 맞춰 이후 수업의 방향과 목표, 교수법 등을 결정했다. 즉, 개별 학생마다 해당 수업의 주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을 때까지 수업하는 숙달기반학습(Mastery based learning)이 진행됐던 것이다.

물론 4년 동안 120학점 가까이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오늘날의 대학에서 숙달기반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다. 매 학기마다 3학점짜리 수업을 최소 5개 이상을 수강해야만 졸업이 가능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나 보다는 어떤 학점을 받았는가를 더 중시하게 됐다.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열보다는 수업에서 보다 나은 학점을 받



## 역량기반 학습법을 적용한 해외 대학

대학명	졸업 학점	Pass/Fail	학점 퍼센트
University of Virginia	120	24	20%
Yale University	108	12	11%
Purdue University	120	24	20%
Princeton University	108	12	11%
UC Berkeley	120	40	33%

기 위해 시험, 리포트, 그룹프로젝트 등에 더 집중하게 됐다.

## 시대 변화와 대학 교육의 본질

과정보다는 결과를, 효과보다는 효율을 강조하는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며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은 본질을 잊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 교육 기관으로 전락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구미에 딱 맞는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 찾기가 어렵다며 대학 교육에 대한 문제를 줄곧 제기해 왔다.

최근 한 예를 보면 구글, 애플, IBM 등 미국 내 거대 IT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대학 졸업장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IT기업들이 주로 채용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실제로 일을 시켜본 결과 대학 학위와 상관없이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기술이 뛰어난 인재가 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은 대학의 교육 및 평가 방식 개혁을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었다. 지식의 반감기가 갈수록 줄어들고 융·복합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기존 지식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지식 창출이 대학 교육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기존의 교육방식으로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능력, 복합문제 해결능력과 인지적 유연성 등을 갖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에듀테크 프로그램과 학습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개인 맞춤형 학습도 가능해졌다. 한 수업 안에서 개별 학생마다 다른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학습방법과 평가방식까지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역량기반학습(Competency based learning)을 통해 암기력이 아닌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 교육평가 방법의 변화

대학에서의 역량기반학습 방법은 크게 2 가지다. 첫번째는 교수가 A,B,C,D,F와 같은 학점이나 성적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대해 글로 써서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교수의 피드백을 토대로 자신의 학습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학습경험을 위해 어떤 부분에 치중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미국 대학의 경우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 알베르노 칼리지(Alverno College), 에버

그린 스테이트 칼리지(Evergreen State College) 등 다양한 대학이 이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두번째 방법은 Pass/Fail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졸업 학점 중 일정 학점을 Pass/Fail 옵션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나 주제에 대해 배워보고 싶은 경우에도 학점이나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다. Pass/Fail 옵션은 A,B,C,D,F와 같이 학업 성취도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A학점에서 C학점 사이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 P(Pass)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Pass/Fail 옵션을 결정하는 시기도 대학마다 다양하다. 수강신청을 할 때 Pass/Fail 옵션과 학점을 받는 옵션 중 하나를 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점을 받는 옵션으로 수강신청을 했다가도 학기가 시작한 후 1~2주 내에 Pass/Fail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다.

Pass/Fail 학점 중 몇 학점을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는지의 정도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10~30% 정도 선에서 인정해 주고 있다. 버지니아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나 퍼듀대학교는 졸업학점인 120학점 중 20%인 24학점을, 예일대학교나 프린스턴 대학교는 108학점 중 약 11%인 12학점을 Pass/Fail 수업으로 들을 수 있게 하고 있다. UC버클리의 경우에는 120학점 중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40학점을 Pass/Fail로 수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 학생, 평가 대상 아닌 학습의 주체

대학의 교육과 평가 방식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학생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주체라는 인식이다. 교수가 정한 답에 가까운 답을 제출할 수록 높은 학점을 받는 평가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점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 없이 학문 자체에 몰입하고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야하는 과정 속에서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 복합문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이상 뒤로 미룰 시간이 없다. 대학 교육과 평가 방식의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2018학년도 경희역사기록물 공모전 개최 안내

경희기록관에서는 '2018학년도 경희역사기록물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가. 참가대상 : 경희대학교 관련 역사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부서 및 개인

나. 대상 기록물 : 경희대학교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

문서류 | 공문서, 간행물, 팸플릿, 포스터, 각종 종서, 강의노트, 서적 등

시청각자료 | 사진, 필름, 슬라이드, 음반, CD, 비디오테이프 등

박물류 | 벽지, 상패, 행사기념품, 우승컵, 우승기, 패넌트, 의류 등

다. 기간 : 2018년 11월 5일(월) ~ 12월 7일(금) 18:00 마감

라. 기록물 접수처 : 경희기록관 사무실(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406호)

마. 우수 기증자 시상

1) 심사결과 발표 : 2018년 12월 21일(금)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2) 시상 : 수상자에게 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3) 시상 내역

■ 대상 (1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최우수상 (3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우수상 (5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참가자 전원: 경희기록관 기념품

바. 기타

1) 공모전에 제출한 기록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경희기록관에서 영구보존

2) 개인 또는 단체(기관, 부서, 동아리 등) 응모 가능

3) 사진파일 등 전자기록물의 경우 e-mail 접수 가능 : 문의처 참조

4)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행정문서류 및 행사 관련 기록물 적극 환영

사. 문의처 : 중앙도서관 경희기록관 02)961-0759 / e-mail: archives@khu.ac.kr